

후지노미야 캠페인

후지노미야 화화첩(藤宮 花畫帖)

제1장 「이치지 나팔꽃」

작성 : @michu_TRPG

본 시나리오에는 「카라스바 세이 (N.G.P.)」 및 「주식회사 아크라이트 출판 사업부」가 권리를 가지는 「인귀 혈맹 RPG 블러드패스」의 2차 창작입니다.

c2019 카라스바 세이 /N.G.P./아크라이트/신기원사

本作は「からすば晴 (N.G.P.)」および「株式会社アークライト出版事業部」が権利を有する『人鬼血盟RPG ブラッドパス』の二次創作です。

c2019 からすば晴 / N.G.P. / アークライト / 新紀元社

● 캠페인 안내

후지노미야 화화첩(藤宮 花畫帖) 캠페인은 도쿄 UTM 스테이지 세트에서 진행할 수 있는 9부작 캠페인 시나리오입니다. 각 시나리오는 단편으로 진행하여도 무방하지만, 연작 캠페인 진행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단편으로 진행할 경우, 혈맹의 연도에 맞춰 시나리오에 기재된 에너지 데이터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에너지 데이터는 「BLP」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사용하며 상호를 사용 시 채용할만한 추천 상호를 기재해 두었습니다. GM은 테이블의 서플 사용 범위에 따라 자유롭게 에너지 데이터를 개변하여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본 캠페인은 1장에서 연도 1~2로 시작하는 저연도 혈맹을 상정하고 있으나, 1장부터 고연도 혈맹으로 데이터를 수정하여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본 캠페인은 후지노미야 가문(UGF P70~P77)의 설정을 이해하여야 진행에 용이합니다. 본 캠페인은 「BLP」, 「SRN」, 「GEC」, 「UGF」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으며, 해당 룰북을 소지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관련 데이터와 설정은 개변 후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본 캠페인에서 혈맹은 후지노미야 가문 소속으로, 후지노미야 분가 가문에서 생겨나는 미스터리한 사건을 후지노미야 사츠키(「UGF」 P74)의 수족이 되어 해결하게 된다는 설정을 가지게 됩니다. 호오즈키 료(「SRN」 P102) 소속 이나 후지노미야 가문 중 본가, 별가의 아홉 가문 중 하나의 출신이라는 설정을 혈맹에게 부여해 주세요.

또한 각 시나리오에 사용된 주의요소들은 사람에 따라 충분히 불쾌한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세션 진행 전, 서로에게 안전한 세션이 될 수 있도록 GM은 시나리오를 읽어보고 기재된 주의 요소에

대하여 세션 참가자들에게 충분한 고지를 부탁드립니다. S메이커는 각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주의 요소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 시나리오 안내

이 시나리오는 「후지노미야 화화첩」 캠페인의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후지노미야 가문 소속의 혈맹은 후지노미야 도쿄 별채의 주인, 후지노미야 사츠키의 부름을 받아 자신의 눈과 검이 되어주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습니다. 말이 제안이지요. 후지노미야 사츠키는 후지노미야 가문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권력자이자 현 당주를 부모로 둔 후지노미야의 공주입니다. 그런 그의 제안을 거부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후지노미야 사츠키의 비밀 정보원이 되기로 한 혈맹에게 후지노미야 사츠키는 첫 번째 의뢰를 합니다. 이치지에서 본가에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일본 유력 재력가들의 손가락을 하나씩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연유를 알아 오길 명합니다.

● 시나리오 기본정보

- 스테이지 세트 : 도쿄 UTM
- 인원 : 2~3명(1혈맹)
- 사용 룰북 : BLP
- 주의요소 : 신체 절단, 기괴 현상, 생매장, 협박 범죄

※주의요소를 반드시 PL에게 전달하고 소재에 대한 호불호를 확인 후 세션을 진행해 주세요. 주의 요소 설정들은 세션의 필수요소가 아닙니다.
서로가 안전하고 즐겁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절해 주세요.

● 시나리오 트레일러

나팔꽃보다 짧은 사랑아.

나팔꽃에 앉은 아침이슬 같은 사랑아.

사라지더라도 그 순간은 영원하오.

제일로 소중한 그것은 사랑.

나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오.
아침이슬처럼 반짝이는 사랑을 보여주오.

인귀혈맹RPG 블러드패스
「이치지 나팔꽃(아사가오)」
피의 굴레야말로 우리들의 절대(絶愛).

●시나리오 핸드아웃

혈맹 공통 핸드아웃을 사용합니다.

PC 핸드아웃

추천조직 : 무관

도쿄 별채의 후지노미야 사츠키가 당신들을 긴히 불렀다. 자신의 비밀 정보원이 되어달라는 부탁이자 명령. 그것을 수락하자 첫 번째 일이 맡겨진다. 첩보, 밀정 활동을 주업으로 삼는 이치지에서 일본 재력가들의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간다고 한다. 후지노미야 본가에서 지시한 일이 아니며 이치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으로, 후지노미야 사츠키는 그 연유에 의문을 가진다. 당신들은 후지노미야 사츠키의 눈과 칼이 되어 이치지로 향한다.

[시나리오 테마 : 이치지에서 재력가의 손가락을 모으는 이유를 밝힌다.]

아래부터는 GM만이 열람 가능한 정보입니다.

● 스토리

이치지가 소유하고 오랫동안 관리하는 도쿄 이리야(入谷) 소재의 넓은 나팔꽃 덩굴밭이 있습니다. 그 땅에는 그동안 이치지가 밀정활동을 하며 협박소재로 사용한 자른 신체가 묻혀있고, 나팔꽃 덩굴은 그 원한을 먹고 자라났습니다. 인간의 정기와 원한을 먹고 자란 나팔꽃들은 언젠가부터 사람의 목소리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나팔꽃들은 이치지가 숨기려고 했던 정보들을 아침마다 피어나며 이야기합니다. 꽃들을 꺾거나 전부 불태워봤지만, 나팔꽃은 흙 속에서 다시 피어나 입을 열었습니다. 이치지는 나팔꽃 덩굴을 사람들의 눈에 닿지 않게 결계를 치고 숨깁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팔꽃 덩굴 사이에 야자 흡혈귀가 나타납니다. 자신의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채 나팔꽃 덩굴에 서 있던 자. 그가 나타난 이후로 나팔꽃 덩굴은 조용해집니다. 이치지는 그를 거두고 「이치지 카즈」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아사히나 마사요시는 제약사 「아사히나 약품공업」의 현 CEO입니다. 전대 회장이었던 아사히나 미치코는 그를 입양한 어머니입니다. 아사히나 미치코는 30년 전, 회사의 번영을 위해 이치지가문에 경쟁사의 기밀정보 유출을 사주했지만, 그 사실을 알게된 경쟁사에서 똑같이 이치지가문에게 아사히나 미치코의 신변 위협을 사주하였고, 결국 그의 남편이었던 아사히나 카즈오가 납치당한 후 암매장당했습니다. 미치코는 남편을 잃은 이후, 자신의 과오를 후회하며 재혼하지 않았으며 마사요시를 입양하여 자신의 후계자로 만들었습니다. 아사히나 카즈오는 이치지의 나팔꽃 덩굴 속에 암매장 당한 후 나팔꽃들의 원념을 먹고 야자로 소생하였습니다. 야자가 되며 생전의 기억을 잃은 아사히나 카즈오는 이치지의 손에 거둬져 이치지 카즈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자신들의 원한을 해결해 줄 존재를 만들어 낸 나팔꽃 덩굴은 이치지 카즈를 조종하여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치지 카즈는 나팔꽃 덩굴의 원념이 이끄는 대로 나팔꽃이 부르는 인물을 찾아가 자신들이 당했던 방식 그대로 손가락을 취하여 죽이며 업혈귀가 되었습니다. 이치지 가문은 이치지 카즈의 소행을 알고 있지만, 이치지 카즈를 쉽사리 죽일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죽으면 다시 나팔꽃들이 입을 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지노미야 가문에서 업혈귀는 흡혈귀의 수치이므로, 혈맹이 진실을 알아내고, 이치지 카즈와 전투하려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도입 페이지

[도입 페이지]에서는 [혈맹의 일상]과 [사건 개입]을 차례로 진행합니다.

●혈맹의 일상

[혈맹의 일상]에서는 PC의 일상 연출을 진행합니다.

장소나 상황은 플레이어의 제안이나 일상표(DOC)등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혈맹이 교토에서 거주한다는 설정이라면 후지노미야 사츠키의 연락을 받고 도쿄로 향하는 연출을 하는것도 좋습니다.

●사건 개입

혈맹의 사건개입 장면

도쿄도 분쿄구 혼코마고메 후지노미야 별저. 거대한 일본 가옥은 고요합니다. 소리를 죽이는 혈주법과 인간이 가까이 올 수 없게 해둔 결계가 느껴집니다. 혈맹이 안내받은 곳은 저택의 깊은 곳에 있는 일본식 방. 그곳에는 선 양식의 정원(가레산스이枯山水)을 바라보며 꽃꽂이를 하는 자가 있습니다. 후지노미야 별저의 주인, 후지노미야 사츠키입니다.

- 후지노미야 사츠키 : “편하게 앉아도 좋아. 그대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 후지노미야 사츠키 : “지금부터 내가 그대들에게 청할것은 그 누구에도 알려져선 안될 일. 가문의 중진이나 당주께서 물어도 입을 닫던가, 목을 베고 죽어야 할 일이다.”
- 후지노미야 사츠키 : “무엇이느냐 하면. 내 눈이 되어 보고싶은걸 보고, 내 검이 되어 죽이고자 하는 자는 죽이면 된다. 여기선 들어오는 소리가 적거든.”
- (혈맹이 후지노미야 사츠키의 명령을 받아들인다.) 후지노미야 사츠키 : “후후, 그래, 좋다. 그렇다면 뭔가 시켜볼까...”
- 후지노미야 사츠키 : “이치지에서 요즘 이 나라 재력가들의 손가락을 자르고 있다지. 본가에서도 모르는 일.”
- 후지노미야 사츠키 : “이유가 뭘까, 나에게 알려주었으면 해. 어떤 이유였어도 괜찮단다. 난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좋아하거든.”

●장면종료 체크

- 혈맹이 후지노미야 사츠키와 만난다.
- 혈맹이 후지노미야 사츠키의 눈과 검이 되기로 한다.
- 혈맹이 이치지에서 손가락을 모으고 있는것을 알고 조사에 나선다.

■조사 페이지즈

조사페이지즈에서는 이치지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며 이치지가 노리는 자들의 공통점을 알아냅니다.

■마스터 장면「아침에 피었던 꽃」

▶장면 묘사

타이밍 : [정보항목명 1]이 공개되었을 때

혈맹은 현 아사히나약품 공업의 CEO인 아사히나 마사요시를 찾아 아사히나약품공업의 본사 건물로 향합니다. 아사히나약품 공업의 본사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한 사장실. 두 인물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사장실 소파에 앉아 있는 아사히나 마사요시와 그에게 칼을 겨눈 이치지 가문의 문양이 그려진 옷을 입은 흡혈귀입니다.

- 아사히나 마사요시 : “당신들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왔나요? 또 우리 회사를 건들 셈이지. 20년 전의 일도 당신들의 짓입니까?”
- 이치지 가문의 인물 : “난 그런건 모른다. 목이 베이고 싶지 않으면 얄전히 손가락을 내 놔.”
- 아사히나 마사요시 : “원하는게 고작 그것입니까? 우리 회사의 기밀 정보를 원하는게 아니라?”

이치지 가문의 인물은 혈맹이 저지하지 않는다면 아사히나 마사요시의 손가락을 자릅니다. 혈맹이 저지한다고 선언하면 선언만으로도 이치지 가문의 인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혈맹이 말을 걸면) 이치지 가문의 인물 : “후지노미야 가문 사람이시군요. 저는 이치지 카즈. 지금 본 것은 못 본 것으로 해주시길 간청합니다.”

- (혈맹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물으면) 이치지 카즈 : “그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오가는 중,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가 있습니다. 아사히나 마사요시를 입양해 키운 모친이자 20년 전, 자신의 남편을 납치 사건으로 잃은 아사히나 약품공업의 전 CEO, 아사히나 미치코입니다.

- 아사히나 미치코 : “마사요시 사장님! 이게 무슨 일이지요? 어떻게 그 경비들을 뚫고 여기까지 올 수 있단 말이지?”
- (아사히나 미치코가 이치지 카즈를 본다.) 아사히나 미치코 : “당신…. 어떻게….”
- (이치지 카즈가 아사히나 미치코를 본다.) 이치지 카즈 : “당신은 누구지…? 누구인데….”

이치지 카즈는 머리를 붙잡고 두통을 호소하며 칼을 버리고 자리에서 사라집니다. 이후, 상황을 정리하면 아사히나 미치코는 20년전 납치 사건으로 실종되었던 자신의 남편, 아사히나 카즈오를 닮았다는 정보를 혈맹에게 알려줍니다. 아사히나 미치코는 자신의 아들에게도 설명하지 않았던 자신의 30년 전 과오에 대해서 털어놓습니다. 회사의 번영을 위해 이치지라는 밀정을 이용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경쟁사에서도 이치지를 이용해 협박을 해와, 남편인 아사히나 카즈오가 실종되었다는 것을 털어놓습니다.

- 아사히나 미치코 : “회사를 번영하기 위해 뭐든지 했던 일을 후회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일로 카즈오를 잃게 된것은 사무치게 후회중입니다.”
- 아사히나 미치코 : “한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그가 다시 돌아오는 꿈을 꾸요. 이렇게 만날줄은…. 나이를 먹지 않은건 놀랍지만요.”

▶장면 종료 체크

- PC들이 아사히나 마사요시와 이치지 카즈를 만난다.
- PC들이 이치지 카즈가 아사히나 마사요시를 공격하는것을 목격한다.
- 이치지 카즈가 아사히나 미치코를 만나고 도망간다.
- PC들이 이치지 카즈가 아사히나 카즈오와 닮았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 정보 항목

▶ 정보 항목명 1 : 이치지가 손가락을 모으는 이유 ▶ 개시치 : PC인원+1 ▶ 내용 : 이치지가 손가락을 잘라간 일본 재력가들 사이에는 과거 이치지에게 정적 제거를 사주한 자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현재 남아있는 자들 중 다음 목표는 30년 전 이치지에게 경쟁사 기밀정보 유출을 의뢰한 아사히나약품 공업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아사히나약품 공업의 CEO라는 마사요시를 찾아가면 그를 노리는 이치지의 인물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아사히나약품 공업의 본사 사장실로 가보자.	▶ 정보항목명 2 : 업혈귀 이치지 카즈 ▶ 개시치 : PC인원×3 ▶ 내용 : 이치지 카즈는 생전 아사히나 카즈오라는 자였으며, 아사히나약품공업의 전대 CEO였던 아사히나 미치코의 남편이었다. 그는 이치지에 의해 납치당해 나팔꽃 덩굴에 산채로 묻혀 사망했다. 이후 소생하여 야자가 된 아사히나 카즈오는 생전의 기억을 모두 잃었고, 나팔꽃 덩굴에 묻힌 신체 조각에 남은 원념들의 꼭두각시가 되어 그들의 원수를 하나씩 찾아가 손가락을 자르거나 죽이고 있다. 현재 이치지 카즈오가 나팔꽃 덩굴에 있다는 이치지 정보원의 연락을 받았다.
---	---

■ 최종혈전 페이지

● 흡혈

[흡혈](『BLP』P22)에서는 혈맹의 「흡혈의 연출」과 「손패 교환」을 진행합니다.

● 최종혈전

PC와 업혈귀 「이치지 카즈오」가 혈전을 하게 됩니다.

보스 에너지 업혈귀 「나팔꽃의 원념, 이치지 카즈오」, 모브 「구울」 1체 입니다.

혈전의 종료 조건은 보스 에너지의 생명력을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장면 묘사

이치지 카즈오는 이치지의 나팔꽃 덩굴에 서서 괴로워합니다. 그의 몸에 나팔꽃 가지들이 뻗어 나와 이윽고 몸에 붙어 피어난 나팔꽃들이 원망하는 자의 이름을 각자 부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원망의 목소리가 가득 찹니다.

- 이치지 카즈오 : “나는 누구지? 기억이 나지 않아. 누군가 날 묻었어. 나를 죽였어. 원망스러워. 원망스러워. 누군진 모르지만...”
- 이치지 카즈오 : (전투 시작 시) “후지노미야의 사람을 상대하고 싶진 않아, 내가 하고싶은걸 하게 내버려 뒀.”
- 이치지 카즈오 : (대미지를 입었을 때) “제법 깊은 상처다...”
- 이치지 카즈오 : (생명력이 0이 되었을 때) “기억엔 없지만, 나는 어딘가로 돌아가고 싶어.”

▶장면 종료 확인

[혈전]이 종료했다.

■ 종막 페이지

[종막 페이지]에서는 사건의 결말과 후일담을 연출합니다.

혈전페이지에서 이치지 카즈를 처치했다면 이후 이치지 가문의 사람들이 찾아와 골칫거리를 해결해 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혈맹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기라도 하는 것 처럼 원념이 사라진 나팔꽃 화분을 선물로 건넵니다.

후지노미야 사츠키에게 사건의 내막을 전달하면 후지노미야 사츠키는 소소한 웃음을 지으며 “그런 일도 있었던 말이지.”라는 말을 하며 흥미롭게 혈맹의 말을 듣습니다. 이치지에서 답례한 나팔꽃 화분을 전달하면 즐거워합니다.

[종막 페이지]이 끝나면 세션을 종료하고 [클로즈]를 진행합니다.

에너미 데이터

「나팔꽃의 원념」, 이치지 카즈

종별	보스, 업혈귀	근원	증오
타입	스피드	위협도	PC의 평균 속련도+2
생명력	PC인원수×2	선제치	14+위협도
에너미 특기 (PC연도 1기준)			
강자의 일섬 근원해방 근원기 : 증오 증오의 가시(憎しみの棘) 허증의 광계(虚憎の狂界) 상호추천 : 형태없는 달(SRN P193)			

에너미 데이터			
모브 구울			
위협도	PC의 평균 속련도	생명력	1
에너미 특기			
전력의 일타(全力の一打), 광신의 벽(狂信の壁), 지원공격(支援攻撃)			